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3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바라는 것 없는 '무조건 믿음'은 공덕

이 세상엔 온갖 생명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있고 식물, 동물이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명들이 점차로 차원을 바꾸면서 진화해 올라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이고 언제까지 자식이요 언제까지 친척이었는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차원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고 그랬을 겁니다.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마음이 강하면 강통끼리 모이고 남마갈다면 남마갈끼리 모이고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그렇게 흩어졌다 모였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살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하는데 빛이 그렇게

대로 그렇게 천차만별로 벌어졌고 거기서 연쇄적으로 잡아먹고 먹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이 삼천대천세계를 전부 태워버릴 수 있는 불씨 하나, 보이지 않는 불씨 하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문답 참자기 주인공에 맡기고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자기가 발현하지 않고는 도대체 만가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풍문에 스님도 신통력을...

문 IMF사태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옴고 있습니다. 그 여파인지 요즘들어 부쩍 점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

“놓고 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걸리지 말라는 거죠”

잘못된 게 많고 탓이 많은지요. 정법이 다 사법이다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야만 하는가? 어린애에게는 모를 것이고 조금 커서 철이 들면 그만쯤 알거고 아주 어른이 되면 이 세상 이치를 죄다 알거고... 그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늙어서 물정을 안다면 젊은이가 노는데 가서는 젊은이가 되어주고 아이가 노는데 가서는 아이가 되어주면서 모르던 모르는데로 겸손하고 자비롭다면 얼마나 부드럽고 편리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 말을 하지요. 법당엘 올라가도 부처님 뜻이 내 꼴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니 돌이 아닌지라 거기서 삼배를 올려도 자아상보에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쪽으로 합쳐도 되고 내 쪽으로 합쳐도 되고, 이리 가도 하나요 저리 가도 하나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공부해 나간다면 그 하나마저도 내세울게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 뜻이 그대로 내 뜻이고 세존과 한자리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풍통의 구더기 그 안에서 활보를 하는데 사람들은 구더기라고 피하지만 구더기는 보물을 만난 격이거든요. 이 세상살이 삶이 차원

고 또 타락에 의지해 보려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풍문으로는 스님께서도 상당한 신통력을 보이신데 그 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시냇말로 오신통이 어떻게 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신통도 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 본다 해서 그걸 보고 도력이 높거나 신통력이 있다고 하는 데 설사 그렇게 안다해도 그건 도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닙니다.

아다시피 요즘 세상은 망원경이다 무선통신기다 무슨 탐지기가 컴퓨터다 해서 인간들이 천리만리를 알아서 보고 앉아서 듣고 있는데 그걸 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신통인들 대수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다 측정기다 무전기다 해서 만들어 쓰듯이 오신통도 내가 부하로 쓰는 것이지 그걸 장점으로 알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저 노예이지 올바른 사람이겠습니까?

이 한쪽 마음을 전체를 돌리면서 쓰는 데... 내가 오관을 끌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주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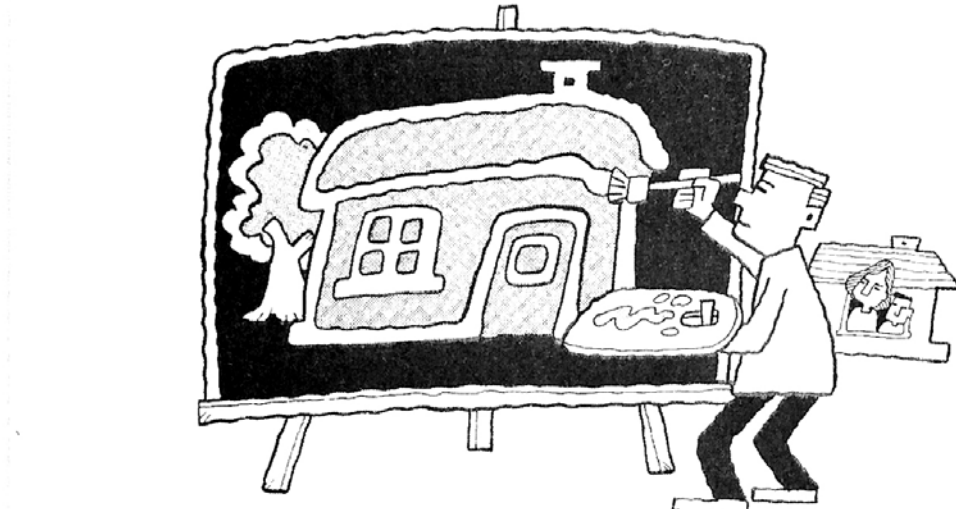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밖으로 신통 찾다간 내집은 빈집됩니다” “물흐르듯 자연스럽게 살면 탈이 없어요”

것인데 오죽이나 못났으면 주인이 거꾸로 부하의 부하 노릇을 해야한단 말입니까? 누구나다 눈 쓰고 귀 쓰고 코 쓰고 입 쓰고 손발 쓰고, 이 열손가락 십대제자를 부리고 하는데... 그렇게 신통자제한테 말합니다. 그러니 안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용한테 찾으 신통하는데 찾다가는 빈 집이 되고 맙니다.

■ 내 집이 빈 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별레가 들끓을 것이고 잡다한 짐승들이 마구 드나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고(苦)를 면하는 커녕 그 반대가 되고 말겠지요.

■ 놓고 사는게 참된 길인지
문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

가 얼마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게 밥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웬지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좋은 집? 좋은 차? 좀 편하게 사는 것? 물질문명이 발달해서 살기에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옛날 농사짓고 살던 때보다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다 놓고 살라고 하십니다. 다 놓고 사는 게 참 사람의 길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놓고 살라고해서 돈도 벌지말고 사랑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물이 흘러가

다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넘어가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고...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면서 불교죠.

■ 그럼 그렇게 살면서 불교를 참되게 알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고 참나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기준을 정해서 아, 이리나 나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손 한번 움직이는 것, 생각 한번 하는 것, 먹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대로 지극하게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최종 것이라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되죠.

■ 불법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게 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중년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령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수십가지 물감을 놓고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노란 물감을 쓸 때도 있고 파란 것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색깔만 써야만 잘 그린 그림이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몇가지 물감만 써야 불법에 맞는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어느 것을 쓰든 고정되게 쓰는게 아니고 그냥 쓰니까 쓰는 나나 쓰이는 물감이나 그냥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할 때만 불법에 맞는 다, 참선이다, 또는 행복이다 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 거듭 말하지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 시냇말로 하면 분수를 지켜라, 욕심을 갖거나 착을 두지 말라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 억지로 하려니까 고가 생기고 얻어 맞고 죽고 그러는 것이지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는데야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

■ 그게 자해로운 일이고 그 자체로서 불행이요 참선이요 보람있는 사찰이고 그렇습니다.

■ 불교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불교인 것입니다.

‘관’ 하는 방법이 아리송

문 스님의 놓고 관하려는 가르침을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한다 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언치 않을 뿐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켜보지도 아리송합니다. ‘관’에 대해 다시금 가르침 바랍니다.

■ 내가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말기라고 하니까 어디 놓을 곳이 있고 말길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러나 누차 말씀했듯이 주인공도 이름입니다. 일체는 공이니 주인공도 공이지요. 하지만 미생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형성시킨 주체, 즉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의 불과 과거의식이 오늘의

18면으로 계속

생활 속의 불교 160

우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내가 세상에 나고서 이 세상은 벌어졌다. 나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고 사회가 생겼고 가정이 생겼으며 나로부터 상대가 생겼으니 내가 나오면서 이 세상 우주 전체가 벌어진 것이다.

■ 나를 빼놓고 무엇을 이 세상이라고 할 것이며 무엇을 진리라 할 것인가.

■ 내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써 일체 만법이 나오 인혜 들고 나며 상대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아무 것도 없다. 만약 내가 없다면 태초가 어디 있으며 우주가 어디 있으며 현상계는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 그러므로 나의 참 모습, 진짜 자기의 뿌리와 씨를 알아야 한다.”

■ 우리들 각자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해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곧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큰 일 작은 일의 결정권을 쥐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쉽게 믿어지겠는가.

■ 내 눈 앞에 펼쳐진 저 광대무변한 현상계가 실은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있

음으로써 비로써 모습을 드러내는 주관적 세계라고 한다면 다들 웃어버리고 말 것이다. 왜냐? 내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느끼든 간에 현상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박할 증거는 많다.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서 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잖나.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불시에 찾아오고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무얼 믿고 내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장담할 것인가.

■ 물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각종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내고 심지어는 유전정보까지 조작해서 진화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고 종(種)의 변이에까지 개입하는 걸 보면 제한적이거나 인간이 우주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 같이 보인다.

■ 하지만 이 광대한 세계를 좌지우지할 권능의 소유자라나?

■ 그런데 왜 ‘내가 곧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가? 눈을 뜨면 세계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세계가 사라지기 때문인가? 그렇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세계일 뿐 그와 무관하게 이 현상계는 존재하고 있는 데 말이다.

■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빛에서 왔고 빛으로 태어났고 빛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나뿐이 아니라 일체 만물이 역시 빛에서 태어났고 빛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나를 포함한 일체 만물은 근본이 같고 탄생의 원리가 같고 돌아가갈 곳이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와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나 조건에 구애받음이 없이 ‘같다’는 등식(等式)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마치 수 없는 원(圓)이 있어도 정처 놓으면 동심원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주관적으로 인식하던 객관적으로 보든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요 일체 만물과 돌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 중요한 가르침은, 그 같다는 사실을 넘어 인간만이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만이 각자의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의 근원인 빛을 깨달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빛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색과 공이 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수행

을 통해 일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돌아가 계할 수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바로 이 때에 이르러 나는 곧 우주의 주인임에 손색이 없게 된다.

■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마음이라는 통로엔 벽이 없고 거침이 없다. 다만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 느끼는 우월감, 자존심, 자애심, 자만심 따위를 포기할 용기만 갖는다면 마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빛에 닮아가고 아미타불과 하나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포기를 두려워한다. 그런 포기 뒤에 무엇이 남을까 싶어 아예 시작하기를 거부하거나 주춤거린다. 우주의 주인도 싫고 그저 ‘나는 나의 주인’으로 남기를 고집한다.

■ 그러나 그런 ‘나’가 죽지 않고 우주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죽어야 우주의 주인이 된다. 대자유인이 된다.

협찬: 박건영